

# 깜짝 방문 꽃범호... 양현종과 훈훈한 만남



플로리다  
**TIGERS**  
캠핑을 가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서 코치 연수 수비서 타격으로 코칭 영역 확장 유일한 휴식일에 캠프 방문

“KIA 뉴스 챙겨보며 역할 고민 주장은 믿음직한 선수에 주는 포상” 양현종에게 따뜻한 응원

“팀에 도움될 사람돼서 돌아가겠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코치 연수 중인 이범호가 24일 KIA 타이거즈 캠프를 방문해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범호는 지난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 마련된 필라델피아의 스프링캠프에서 지도자 연수를 시작했다.

낯선 환경에서 메이저리그식 ‘논스톱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이범호에게 이날은 캠프 유일의 휴식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휴식을 마다하고 차로 2시간 거리를 달려왔다.

이범호는 “쉬고 싶었는데 오늘 아니면 KIA 캠프에 올 시간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걸음이 떨어졌다. 내에게는 힐링이다. 오니까 좋고 재미있다”고 미소를 지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20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이범호는 ‘초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범호는 “선수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 하고 싶은 선수들을 도와줘야 하고

하기 싫은 선수들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가 야구 덕분에 큰 사랑도 받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어린 친구들이 사는 시간대를 15년 20년을 먼저 지나왔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니까 그 나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야구 인생을 들려주고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범호는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유망주 위주로 진행되는 캠프, 선수들의 심리를 이용해 ‘잘하는 선수’의 마음을 우선 두드렸다.

이범호는 “지켜보다가 잘하는 것 같은 선수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 15분 정도 이야기하니 나중에 선수들이 하나씩 왔다.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를 지켜본다”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수비에 역할이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구단과 선수들이 이범호가 KBO리그에서 쌓은 기록에 주목하면서 역할이 늘고 있다.

이범호는 “3월 1일 전체 선수가 다 모이는데 2분 짜리 내 영상을 틀어주겠다고 했다. 어떻게 선수 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선수들이 더 많이 다가갈 것이고 그 효과를 누리고 싶다고 했다. 선수들이 유튜브에서 내가 홈런 쳤던 것도 찾아보고, 코치들도 배트 플링하는 것도 보여주더라”며 웃었다.

새로운 생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살고 있지만 그는 꼬박꼬박 KIA 뉴스를 챙겨본다. 팀에 대한 애정이자 미래를 위한 노력이다.

이범호는 “KIA 뉴스 다 본다. 윌리엄스 감독님이 어떤 야구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성격이 어떤지 알아야 내가 다시 돌아갈 때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호는 이날 뉴스로 접한 소식들로 후배들의 안부를 물으며 ‘영원한 캡틴’의 면모도 보였다.

이범호는 “주장을 하면 젊은 선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들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다. 후배들을 챙기면서 하나가 야구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나만 생각했으면 코치 생활에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코치 연수 중인 이범호가 24일 KIA 스프링캠프를 찾아 양현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선수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시즌 ‘캡틴’이 된 양현종에게 애정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범호는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팀과 상황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선수에게 주는 가장 큰 포

상이다”며 “혼자서 야구만 한다고 더 잘되지 않는다. 현종이가 올라갔을 때 옆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든 이겨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투수들에게 했던 것처럼 야수들도 잘 이끌어 팀이 잘 되는 방향으로 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왜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KIA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돌아가겠다. 올 시즌 멀리서 KIA를 응원하겠다. 팬분들도 애정을 갖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코로나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많은데 다들 잘 이겨낼 것 같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팬들을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wool@kwangju.co.kr

## 매일 ‘최형우 카페’

‘커피 내기’ 미션서 패배... 동료들에게 세번째 ‘커피 타임’ 제공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24일 KIA 타이거즈 야수진의 송구 훈련이 끝난 뒤 커피를 주문하는 선수들로 그라운드가 시끌시끌해졌다.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최고참 김주찬과 주문 인원을 확인하는 최원준. ‘짧고 굵게 그리고 유쾌하게’로 표현할 수 있는 KIA 캠프에 찾아온 ‘커피 타임’이었다.

워드마이어 수석코치의 지휘 아래 진행된 송구 훈련에는 ‘커피 내기’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었다. 내기 방식은 간단했다.

워드마이어 수석코치가 던져준 공을 받아 설치된 그물망 안으로 공을 던지면 통과, 실패하면 탈락자가 되는 방식이었다.

순서대로 그물망을 겨냥한 야수진은 1차 탈락자가 나오지 않자 거리를 늘려 2차 시도에 나섰다.

다시 시작된 치열한 경쟁. 5번째 주자로 나선 김선빈이 공을 던지자 이내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김선빈이 던진 공은 그물망 오른쪽을 비껴 갔고 탈락자가 됐다.

남은 야수들이 다시 집중해서 그물망을 향해 공을 던졌고, 잠시 뒤 이번에는 더 큰 환호와 웃음이

터졌다. 김선빈을 탈락자 자리로 밀어냈던 최형우가 그물망 위로 공을 던지면서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선수들의 웃음이 컸던데는 이유가 있었다. 최형우는 앞서 두 번이나 내기에서 지면서 의도치 않게 ‘커피남’이 됐다.

남은 야수진에서 탈락자가 나오지 않자 김선빈과 최형우의 배틀이 시작됐다. 두 번의 송구 시도 끝에 두 사람은 베이스 가까이 공을 붙이는 것으로 최종 승부에 나섰다.

그리고 의욕이 넘친 최형우의 공이 베이스를 훌쩍 지나가면서 김선빈이 승자가 됐다. 다시 한번 ‘최형우 카페’가 KIA 캠프에 차려졌다.

후배들을 위한 ‘야수 최고 연봉자’의 의도적인 배려가 아니냐는 이야기에 최형우는 경기에 진 표정으로 “승부욕이 많은 사람이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wool@kwangju.co.kr



‘커피 내기’ 송구훈련 도중 목표 맞히기에 실패한 김선빈(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환호하는 동료들.

## ‘뒷심’ 이경훈

PGA 푸에르토리코 오픈 최종일 5타 줄여 14위...2주 연속 상위권

이경훈(29)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푸에르토리코 오픈 최종일에 5타를 줄여 상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이경훈은 24일(한국시간) 푸에르토리코 리오그란데의 코코 비치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뽑아내며 5언더파 67타를 때렸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이경훈은 공동 14위로 순위를 14계단 끌어올렸다.

공동 9위 그룹과 딱 1타차라 아쉬움이 남았지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공동 13위에 이어 2주 연속 상위권 입상이다.

무엇보다 최종일에 타수를 크게 줄인 뒷심이 돋보였다.

시작은 썩 좋지 않았다. 1번 홀(파4)부터 보기를 한 이경훈은 7번 홀(파4)까지 버디 2개와 보기 2개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8번 홀(파3) 버디로 겨우 언더파로 전반을 마친 이경훈은 후반 9개 홀에서 보기 없이 4개의 버디를 뽑아냈다. 특히 17번(파4), 18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가 보약이었다.

배상문(34)은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35위(9언더파 279타)로 내려앉았다.

전반에 나온 3개의 보기가 발목을 잡았다.

신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은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18번 홀 버디로 조시 티터(미국)를 1타차로 제친 호블란은 이번 시즌 7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리며 특급 신인 탄생을 알렸다.

아마추어 시절과 지난해 초청 선수로 출전한 대회까지 합치면 이번이 17번째 PGA투어 대회 출전이다. 그는 PGA투어 대회 정상에 오른 최초의 노르웨이인이 됐다. /연합뉴스



##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연기

스포츠계도 ‘코로나 비상’...프로야구 일정도 차질 불가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전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점들을 고려했다.

연맹은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본 뒤, 변경된 리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K리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R리그와 K리그 산하 유스클럽이 출전하는 K리그 주니어의 개막도 연기됐다.

또 이사회는 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구단들의 휴경기를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치를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K리그 개막이 잠정 연기되면서 프로야구 일정

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달 14일 프로야구 시범경기 일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KBO는 시범경기 일정 변경과 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FC와 KIA 타이거즈도 코로나19 추세를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는 최근 구단 SNS 등을 통해 광주월드컵보조구장(클럽하우스) 훈련 관전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 통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서 전지훈련 중인 KIA도 국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KBO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범경기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KIA는 귀국을 미루고 캠프 일정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